

# “관계와 과정에 주목하라, 결과는 그 다음”

## 복잡한 세상 단순하게 사는 방법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은 200여 년 넘게 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군림해 왔다. 전통 과학은 이런 기계적 세계관과 요소 환원주의의 두 축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젠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보완되어야 하고, 또 다른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것이 지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떼들은 매우 복잡한 행태를 보이면서도 이동하면서 이탈하거나 충돌하는 법이 없다. 그것은 >앞에 가는 새가 리더 >일정한 거리 유지 >일정한 속도 유지 등 세 가지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복잡계란 학문은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동안 고안된 우리 사회체제의 관리원칙이 너무 많고 복잡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돼 발전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복잡계이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로우(Arrow)와 물리학상을 받은 앤더슨(Anderson), 겔만(Gell-Mann) 등이 1984년 미국 산타페연구소에 모여 시작한 신과학 운동이다. 이후 복잡계이론은 사회과학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복잡계는 단순히 무질서하고 난잡한 의미의 '복잡'이 아니다. 함께 엮임으로써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질서정연한 상황이 복잡함을 뜻한다.

복잡계이론은 수많은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특성과는 사뭇 다른 또 다른 현상과 질서가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즉, 아무리 복잡한 체제라도 단순한 규칙에 의해

순히 합쳐진 것이 아닌 관계와 소통으로 어우러져 있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분석에 치중하는 전통적인 이론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경계와 조직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의도나 계획에 맞춰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기계론적 관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나 조직은 기계가 아닌 전형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계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은 스스로 질서를 창출하고 바람직한 상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즉 정책과 전략이 요소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계와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선형적 인과관계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어 왔다. 그리고 조직과 사회체제 내의 인과관계는 복잡해 탐지하기 매우 어렵기에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인과관계를 신봉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제 자연체제를 새로운 형태의 행동을 창조해 나가는 생명을 지닌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복잡한 사회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하려 한다.

최창현 지음 | 이문지 옮김 | 펴냄 | 1만2000원  
이은경 기자 soej84@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술일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히안연꽃
6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	월호	조계종출판사
7	변노 리셋	코이케 류노스케	불광출판사
8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9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심정섭	운주사
10	원역 티베트사자의 서	중암	정우서적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 윤남진 리뷰

# 국가를 교회로 만들려는 이들도 관용되어야 하는가?

믿음만한 기관들의 조사결과는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종교단체는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강한 종교인일수록 비판용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세계적 공동조사인 ‘한국사회종합조사’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결과이다.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종교조직 및 종교단체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은 59.2%였던 반면, ‘적당하다’는 응답은 28.0%, ‘권력이 적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대체로 비판용적이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56.2%였는데 반해 ‘반대’하는 사람은 21.7%에 불과했다. 특히 직업별로 보면 관리전문직 종사자들에서 비판용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69.9%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종교의 권력과 현상과 권력(행사)에 가장 접근해 있을 관리전문직에서 종교적 비판용성 강화 현상은 사회통합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의 적신호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이념적으로 기초한 태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종교적 불관용의 배제, 정치권력과 종교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정치체제를 이념적으로 기초한 조상들 중 한 명으로 존 로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로크가 살았던 시기(1632-1704)는 유럽의 종교전쟁이 끝날까 향하고 있던 시기였다. 130년간(1559-1689) 지속된 파괴적 싸움의 종결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인 영국의 명예혁명(1688)을 지지하기 위하여, 로크는 바로 다음 해 <관용에 관한 편지>와 <시민정부론>을 발표한다. 그 중에서도 <관용에 관한 편지>는 “왜 서로 다른 신앙과 백을 가진 기독교인 상호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가?”, “시민정부(통치자)의 임무와 교회의 임무는 어떻게 다르며, 관용에 있어서 통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에 대한 친절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비록 당시의 유럽이 다문화적 상황이 아닌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 대목을 제외하고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기하고 있고, ‘관용’을 시민적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념적 기초를 명쾌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로크는 종교적으로 다른 견해에 대한 관용을 위해서는 우선 “시민정부의 일과 종교의 일을 정확



‘관용에 관한 편지’ 존 로크, 철학과학원실사, 2009



‘관용에 대하여’ 마이클 월저, 철학과학원실사, 2004

교회에 대한 열정이 지배욕과 합해질 때  
종교와 영혼을 돌본다는 미명은  
탐욕·야탈·야망을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하게 구별해서 이 둘 사이에 정확한 경계선을 긋는 일이 필요”하며, “통치자의 관할 영역은 시민적 이익에 국한되어야 하고 영혼의 구원까지 확장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진리를 전파하는 데에 진리 자체 말고 외부로부터의 원인을 요청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만연”되고 있으며, “(성직자가) 자신들의 설득력이

나 지식에 도움을 받기 위해 통치자의 권위를 불러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세속적 지배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경고한다. 한발 더 나가서 로크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지배욕과 합해질 때, 종교와 영혼을 돌본다는 미명은 탐욕, 야탈, 그리고 야망을 매우 잘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폭로한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 설계자들이 이해하고 주장한 ‘관용’은 세계화된 다문화주의 시대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미국의 정치학자인 마이클 월저의 <관용에 대하여>를 통해 해답의 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월저는 “(관용) 생명 그 자체를 수호”하고 있으며, “공공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이를테면 관용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나섰고, 그것은 모두의 멸망을 방지하는 것 즉 공존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관용은 “조화를 위한 공식”이 아니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월저는 관용과 관용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해 “관용제도 그 자체에 이해관계를 느끼는 시민”의 집단적 응집력과 정치적 활동력, 즉 차이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결합된 관용적 태도와 실천에 기대를 건다.

그렇다면 ‘국가를 교회로 만들기를 희망하는 종교’도 관용되어야 하는가? ‘신정일치’를 주장하는 종교들도 관용되어야 하는가? 초기 시민정부의 설계자들, 이를테면 로크와 루소는 ‘스스로 불관용자인 사람들은 불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존 롤스는 <정의론>(1971)에서 “관용을 베푸는 자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서 그들 자신의 안전이나 자유로운 제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에만 불관용적인 종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월저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민족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관용되지만, “그들은 또한 권력을 잡는 데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쟁에서조차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설교, 저술, 회합을 통해 ‘신정일치사회’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마을을 떠날 것인가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는 이른바 ‘성시화운동’ 주장자들에게 관용은 어디쯤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파적(호교적) 입장에서 유능하고 더불어 시민사회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종교인이 되는 길은 실로 험준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 험로를 헤쳐가는데 여기 소개한 두 권의 책이 최소한의 정치적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용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달마는 서쪽에서 오지 않았다**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큰스님이 추천하고, 명예원로의장 성수 큰스님이 증명한 책 성품이 본래마음이자 도예요 선(禪)입을 위한 참선 및 명상 수행자의 필독서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추천 도서

달마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니 — 연화스님  
간화선 어렵다면 염불선이 대안될 수도 — 한국일보  
달마이러 대종도 쉽게 이해 — 경향신문  
달마이러 번역서가 아닌 해설서는 처음 — 문화일보

교방장, 교도소 등에 반드시 할 경우 특별할인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비움(비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동7가 52-10 남영B2 2층 222호  
전화 02-2632-8739 팩스 02-2068-0178 e-mail buddhapie@daum.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계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여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원통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자비로 중생들을 여여보셔 대희대사 베푸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자심귀명례 금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ET : DVD 26개 52장  
구입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그림으로 보는 동화

무릎팍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된다. 이런 이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 된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한번쯤 겪게 되는 죽음과 이별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엄마의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아이의 눈을 통해 담담하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화려한 장식이나 설명은 피하고 최대한 절제되고 간결한 언어로 아이의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엄마의 죽음에 분노하다 서서히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사루트 몬드리크 지음 | 울리베 에 탈레크 그림 | 한울림어린이 펴냄 | 1만500원

좋은 일이 생길거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일하다 아시아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다. 베트남 여행을 하던 어느 날, 우연히 간헐 새를 풀어 주기 위해 돈을 주는 어느 가족을 본 작가는 한 학생을 통해 불교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 듣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마이'라는 소녀의 선행을 통해 그 나눔이 어떻게 돌고 돌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작가의 생생한 경험과 나무 판에 그려진 서정적인 그림은 베트남 소녀 마이의 간절한 바람을 더욱 아름답게 전하고 있다.

로즈앤 통 지음 | 유진 김 일러스트 | 그림노란상상 펴냄 | 9500원

# 진정한 예술 위해 출가

## “선화는 마음 밝히는 구도행”

달마야 놀자! 30년 범주 스님



수행과 예술을 하나로 추구하기 위해 달마를 그린 지 30년. 범주 스님이 도자기에 새긴 달마도를 보여주며 달마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달마도를 집안의 좋은 기를 불러 넣어주는 부적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달마도는 선화(禪畵)의 한 종류로서 수행자들이 선수행과 더불어 그리는 그림입니다.”

고요하고 인적 드문 속리산 자락. 그곳에는 범주 스님의 수행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선화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스님이 수행자로서 선화를 그려 온지도 30여 년이 넘었다.

“달마는 선의 원조입니다. 달마도는 선이 수행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면 공해가 되고 맙니다. 탁한 기운이 있는 자가 그리면 마음도 탁해져 결국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달마도가 사람들에게 왜곡된 채 알려지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일들은 바로 잡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전 한 방송매체를 통해 달마도가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달마도는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달마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달마도를 찾는 것을 보면, 스님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달마도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달마도를 가르쳐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달마도를 그리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가?”

달마도에서 달마 대사는 짙은 눈썹에 큰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달마도를 보고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스님은 “열심히 수행한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그린 달마도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맑은 기운을 불러 넣어줘 전혀 무섭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달마도는 본래 포대화상 등과 더불어 선화의 한

소재로 널리 사용됐다. 달마 대사의 불법을 기록하고 싶었던 이들이 계승과 함께 달마 대사의 얼굴을 그려 넣었던 것이 달마도의 시작으로 본다.

범주 스님이 처음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만해도 달마도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스님은

“선과 수행과 예술을 하나로 추구하기 위해 붓을 잡은 것이 달마도를 그리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범주 스님은 젊은 날 예술과 인생을 제대로 알고,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24세에 출가해 선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인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고 선악이 일어나기 전의 절대 자리를 깨닫고 싶었다. 그 후 스님은 수행하며 깨달은 것을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어 선묵화를 그렸다.

스님은 이후 여러 선방에서 수행을 하다 송산 스님을 만났고,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과 뉴욕, LA 등지에서 10년 간 포교활동에 매진했다. 1989년 귀국한 뒤에는 경북 상주시 달마선원에서 선화 그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스님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전시회와 대형 붓으로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열어 불심을 전파했다. 특히 지난 2006년도에 개최됐던 APEC 부산 회의에서는 각국의 영부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형 달마도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했다.

달마선원에는 100여 점의 선화들이 전시돼 있다. 작품들은 천, 나무, 도자기 등 그 소재도 다양하다. 스님은 최근 3년간에 걸쳐 완성한 옷칠 선화를 선보이며, “일본에서 달마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조만간 옷칠 선화로 일본에서 개인전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선화가 여가의 취미를 위한 붓장난이 아니라 목선일여(墨禪一如)의 구도의 길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 기운으로 마음을 밝혀주는 도(道)의 예술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054)535-0378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비슷하니 더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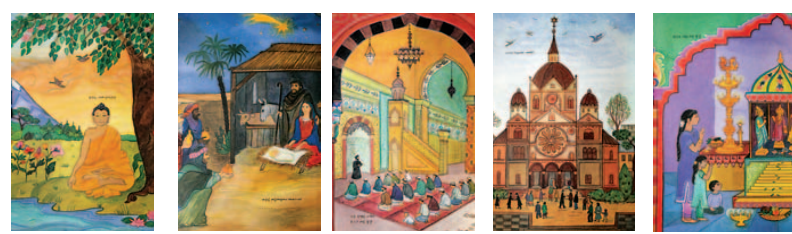
차별의 씨앗이 되는 종교? No!

가 다른 것이 아닌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과제물로 자신의 종교를 발표하게 된 다섯 아이들이 5가지 종교(불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동화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각 종교들이 생겨났을 시기와 관습, 특징들에 대해 서로 공

급한 것을 묻고 답하며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어릴 때 몰랐던 여러 종교를 어른이 돼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종교 상황과 타인과 서로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5가지 종교의 중요한 요점을 간추려 설명하고 있다.

지그리트 라우베 지음 | 새터 펴냄 | 1만3500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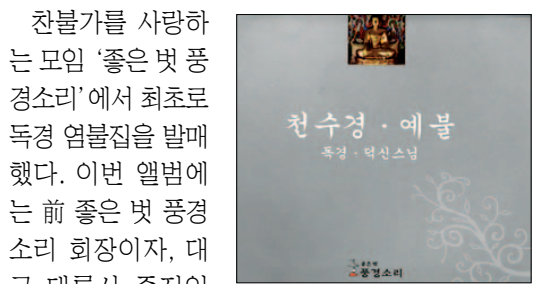
### 문화 단신

#### 2010 불교합창페스티벌

불교합창단의 발전과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2010 불교합창페스티벌'이 11월 7일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22개 팀이 참가해 신작찬불가 합창 경연대회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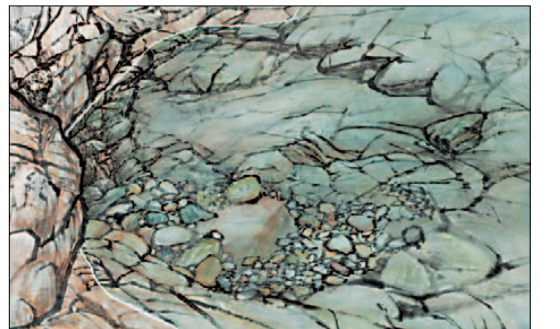
예선은 2010년 상반기 조계종 문화부(부장 효탄)에서 발표한 20곡의 신작 찬불가 중에서 1곡, 본선은 신작 찬불가 또는 미발표 창작 찬불가 중에서 1곡을 부르게 된다. 대상 수상팀 상금 4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 천수경·예불 CD 발매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에서 최초로 독경 앨범집을 발매했다. 이번 앨범에는 前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이자, 대구 대륜사 주지인 덕신 스님이 참여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앨범에는 천수경, 반야심경, 화엄경 약장계, 법성계, 예불문,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신묘장구대다라니, 우리말 반야심경 등 8곡이 수록돼 있다. 대체적으로 독경앨범이 중간에 호흡을 위해 끊어짐이 있는데 비해, 이번 앨범은 일정한 호흡으로 끊이지 않은 독경과 맛을 부리지 않은 덕신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02)723-9836

#### 물 속 돌을 그리다



한경혜 작가가 '물 속 돌을 그리다'를 주제로 11월 3-9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계곡물이 고요히 잠긴 곳에 가득한 돌을 그린 수묵화 18점을 전시한다. 그림은 인적은 지워진 채 오로지 돌과 물만이 화면에 가득하다. 흡사 우물 안을 내려다보는 듯한 작각을 주기도 한다. 수묵에 은은한 담채가 얹어진 작품은 조심스러우면서 소박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맑은 계곡의 물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순박한 아이의 마음 같아서 좋고, 무겁게 흐르는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운 채 순간을 잠시 되돌아보게 하는 여유가 있어서다. (02)736-6669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불자용수저 “다라니”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수저 선물은 주고 받는 분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선물입니다!**

수저 선물은 주고 받는 분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뜻 깊은 선물입니다!

■ 사찰에는 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다라니수저” 신제품 출시기념 공장도가 3,000원 시판

2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 제작해 드리며(실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있다. 다라니 수저는 백화점에서 Set당 7,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공장도 가격 set당 3,000원에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 50Set, 100Set 단위로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민용과 신씨 **고영산업**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집안동토탈 알아내는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법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귀신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비법

百超律歷學堂

입금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02) 3667-4446  
계좌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10-3813-4443

베스트 셀러 진입 상하 각권 120,000원